금년말까지는 서울시내의 생계유통을 없애겠다

(서울시 방침과 생산자의 입장을 알아본다)

— 취 재 부 —

우리나라의 부로일러 산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하고 전체 육류소비량의 1/4을 점하게 된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는 물론 많은 관련 부문의 협조로 이루어졌음을 두말할 것도 없다.

우리는 매년 쇠고기 파동을 겪고 있으며 쇠고기의 소비는 매년 증가하는데 한우의 두수는 반대로 매년 감소하고 있어 쇠고기 수입이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도 쇠고기 부족을 메꾸기 위하여는 값싼 닭고기나 돼지고기로 육류 수요를 대체하는 방침을 세우고는 있으나 실제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더욱이 닭고기의 경우는 단속→유통마비→시장에는 품절이요 농장에는 체화→소비자고가매입→생산자 덤핑판매→단속완화→ 생계유통→다시단속→가격하락의 악순환을 계속하여 값싼 닭고기 소비를 크게 감소시키고있는 요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제 부로일러 업자는 서울시에서 언제 단속을 또 실시할 것인가에 따라 입추계획을 세워야 하고 부로일러 가격은 생계단속에 따라 상인들이 문을 닫고 여는 데에 좌우되므로 부로일러 하면 서울시와 단속을 생각치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간의 경위를 간단히 설명하면 농수산부는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2조에 농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는 닭도 허가된 도계장 (가금처리장)에서만 도계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76년에 서울을 비롯한 7대 도시를 법적용 지역으로 고시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생계 진열과 밀도계 단속을 실시하자 단번에 유통이 마비되었고 부로일러 생산 농장에서는 닭이 체화되어 큰 고통을 받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지금까지 유통을 담당하였던 당사자인 생계상인들이 움직이는 듯 하다가 이들은 생산자가 더 급하다는 것을 알고는 뒤로 빠져버리고 생산자가 양계협회를 중심으로 모여 대표를 선출하고 농수산부와 서울시, 청와대 등에 다니면서 생산자의 고충을 설명하고 단속을 완화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생산자 대표는 이때 서울시의 입장은 법이 있으니 시행하여야 되는 위치이고 농수산부는 시행청인 서울시와 협의하여 원만히 잘 처리하기 만을 바라는 것이 양측의 입장임을 알고는 좀처럼 쉽게 해결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한편 최성수기인 복(伏)철에 단속으로 농장마다 닭이 체화되어 그야말로 언제고 뇌관에 불만 붙으면 폭발할 상태로까지 상황은 긴박해져 갔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지자 1976.8.3일 가금처리협회 사무실에서 도계장 사장들의 전체회의가 소집되고 이 결과에 기대를 건 200여명의 생산자들이 회의장 주변에서 초조히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 3시까지 이 회의가 난황을 거듭하자 찌는 듯한 무더위에 몇시간씩 기다리던 생산자들이 폭발하여 회의장에 난입하게 되고 소란해지자 TV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취재하고 각 일간지, 라디오 기자들이 몰려와 사회문제화 되었다.

생산자 대표들은 법이 있는 한 해결의 방법이 막연함을 알고 국회에 찾아가 청원법에 의해 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회의장에게 청원하였고 당시 농수산부 장관이 국회에서 현실적으로 법에 문제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법의 집행을 유보하겠다고 하기에 이르렀다 이때가 1976년 12월 15일이었다. 봄부터 시작한 도계유통 분쟁이 실로 무덥고 긴 여름철을 넘기고 찬바람 몰아치는 12월 중순에 잠정적인 막이 내렸으니 그간의 생산자의 피해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그후 농수산부는 간이도계장 제도와 서울시의 지역고시 방법과 고시지역 아닌 도계장에서도 서울시에 반입할 수 있는 등 몇가지를 보완해서 79.2.1부터 서울시의 중구, 종로구 및 일부 아파트 지역에서 다시한번 생계 및 밀도계 단속을 시작하였다. 중구, 종로구와 아파트 지역은 당초 생계상이 별로 없던 지역으로 조용히 넘어가자 이에 자신을 얻은 서울시는 80.4.1부터는 지역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0.26 후의 혼란과 격동기를 실제 단속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지난 5.18일 부터 이제는 시장 밀도계를 뿌리 뽑겠다고 발표하였다.

조마조마하게 가슴을 조이며 생산자들은 5.18을 기다렸다.

입추수수를 줄이고 이제는 지긋지긋한 서울시와 생계상들간의 밀고 밀리는 단속이 끝나는가를 지켜보았다.

더우기 생산자들은 새로 부임한 박영수 시장이 부산시장 재임시 부산의 생계유통을 도계유통으로 바꾸어 놓은 도계유통에 소신을 가진 인물이라는데 더욱 신뢰를 하고 하루빨리 이 지루한 싸움이 종결되기를 바라마지 않았다.

그러나 2달 반이 지난 7월말에도 외관상 보기에는 5.18 이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단속→생계상철시→닭값 하락→생산자피해로 이어지는 수레바퀴는 76년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단속하면 닭값이 900원, 안하면 1,100원으로 굳어지는 것 같다.

생산자는 불안하다.

그렇다고 생업을 중단할 수도 없고 내닭을 팔 때는 단속기간일까를 염려하게 되었다. 과연 도계유통은 이루어지는가?

생산자는 궁금하다.

이에 생산자이며 본지 편집위원인 신정일 사장과 서울시 실무책임자인 김형수 농축과장과의 대담을 소개한다.

Q→도계 유통을 76년 부터 6년간이나 서울시에서 시행하려고 했으나 번번히 실패했읍니다. 지난 5월부터 서울시의 단속으로 닭값만 떨어져 생산자와 소비자가 크게 손해를 보았고 현재는 다시 생계로 유통되는 실정입니다.

Ⓐ→6년이라고는 하나 76년에 유보된 뒤 실질적으로는 금년 5월 18일 부터 시작되어 이제 겨우 2개월 밖에 되지 않고 있읍니다. 서울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금년내로 위생적인 도계유통을 정착시킬 작정입니다.

지금은 법이 법대로 옳게 시행되는 정의사회를 구현하자는 때가 아닙니까?

그간 내부일로 잠시 단속이 약화된 틈을 타서 다시 생계가 나오고 있으나 8월초 부터는 다시 단속을 강화하여 뿌리를 뽑을 작정입니다

양계업자도 생계상에 닭을 팔지 말고 서울시 방침에 많이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래야 빨리 정착됩니다.

Q→대부분의 양계업자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유통에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현재 도계장들이 자금능력을 갖추지 못해 도계장에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형편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이 있읍니다.

또 금년말까지라면 앞으로 5개월이나 남았는데 생산자들에게는 너무 긴 기간입니다.

Ⓐ→유통의 일대 개혁인데 생산자의 얼마간의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생산자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고 가금처리장도 경기도에 몰려 있읍니다.

하루 빨리 도계유통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경기도 당국과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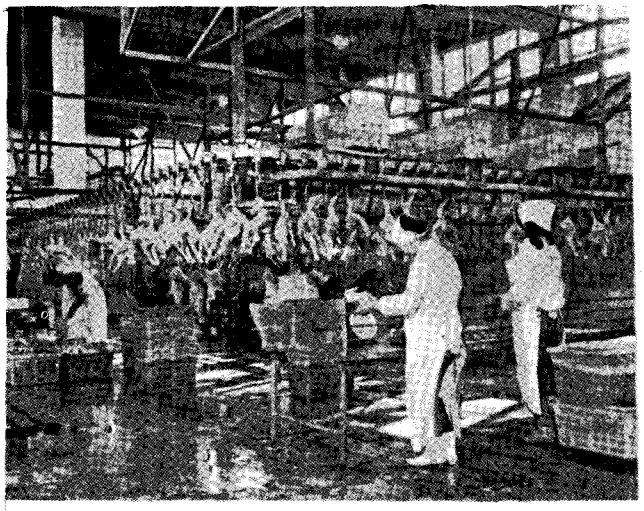
생산자들도 경기도 당국과 협조해서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Q→현재도 생계로 서울시내에 닭들이 유통되고 있는데 실제로 서울시는 지역이 넓고 소비량도 전국소비의 거의 절반에 가까와 농축과 수의직 몇사람으로는 단속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 현재 수의직 공무원이 약 20명 있읍니다. 그래서 구청직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할 예정이며 강동구에서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단속해서 효과를 보고 있읍니다.

앞으로 생닭 탈모기 등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해서 더욱 철저히 단속할 예정입니다.

Q→현재 간이도계장의 도계품 품질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우선 손으로라도 위생적으로 도계하도록 하는 방안 등은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법으로는 허가된 도계장 이외에서 도계한 것은 인정할 수 없읍니다.

품질문제인데 시장의 생닭점포 주위에서 냄새와 오물 때문에 관계당국에 진정이 많이 들어오고 있읍니다.

지난 1차 단속때 청계천 8가 쓰레기장 부근에 우물을 파고 하루 3천여 수를 밀도계하는 것 등을 단속했읍니다.

이러한 밀도계는 위생면에서도 빨리 없어져야 되겠읍니다.

생계 상인들에게 공문으로 최후통첩을 하였읍니다. 생계상들이 도계품을 취급하는 것보다는 마진이 높기 때문에 더욱 반발을 하는 것 같은데 강력히 단속해서 빨리 종결짓겠읍니다.

그간 2개월 동안 단속한 결과 도계품 판매점이 4월 이전에 150여 곳에 불과하던 것이 현재는 721개소로 늘어났읍니다.

도계품 판매소가 1,000곳만 넘으면 도계유통은 자연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Q→현재 서울시에서는 수도권 내의 도계능력이 하루 8시간 가동기준으로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수요는 년평균 1일138,000수로 보고

있으며 성수기는 190,000수, 비수기는 120,000수 정도로 보고 있으며, 도계능력은 156,000수 정도로 추산하고 있읍니다.

Q→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주시어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유통구조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며 항상 생산자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6년전에도 서울시내에서는 거의가 생닭으로 유통되고 있었으며, 이조말엽 또는 더 이전부터 생닭으로 유통되어 왔다.

이를 도계유통으로 바꾸려는 유통 혁명이 76년부터 이루어지려고 하다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여 왔다.

지방의 도시들은 성공하는데 서울시는 왜 안되고 있을까?

그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가?

그간의 경험으로 그 원인을 당국이나 생산자, 생계상, 도계장 모두들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너무들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기 때문에 더욱 더 어려운 것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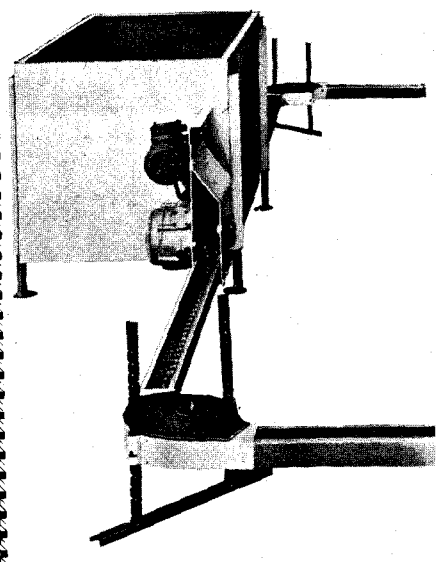
이제 8월초부터 또 한차례의 대단위 단속이 시작되려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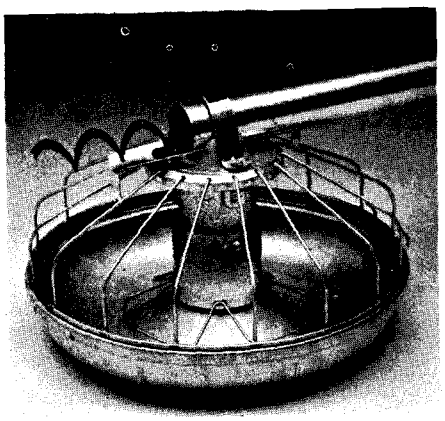
지금까지도 많은 단속이 있었고 현재도 단속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76년과 별차이 없이 생계로 유통되고 있다.

8월달에도 단속으로 닭값만 떨어지고 9월부터는 계속 생계로 유통될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당국자의 말대로 금년내로 도계유통이 뿌리를 내릴 것인지?

생산자는 답답하기만 하다.





오가급이기는 육계의 평사사육에,
체인급이기는 종계의 제한급이와
케이지 산란계의 자동급이에 적합합니다

Cyclone INTERNATIONAL, INC. **과학축산시스템**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40-152
전화 : 792-7212 · 7887

수입 판매
엔지니어링